

웹툰으로 보는 민주시민 · 인성교육

도교육청 '교실과 일상에서 꽃피우는 이야기' 제작·보급 평화로운 갈등 상황 해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목적



전북도교육청이 제작한 민주시민 인성교육 웹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민주시민·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웹툰 형식의 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웹툰 형식의 교실과 일상에서 꽃피우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

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화 바른 말 고운 말은 언어순화, 갈등 해결 등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웹툰 전체 운영 개요 및 홍보 게시용 자료가 학교에 안내됐으며, 관

련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민주시민 교육과(인성교육 학교미팅)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문·예·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제작해 학생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읽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체화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학생들이 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판단과 책임감을 갖고 자기발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덕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솜뿔 영상 공모전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의 감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대학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영상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영상으로 응모자가 창작한 작품이면 된다.

국립군산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군산 관내 재학 중인 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군산 거주 시·민 대학 구성원(학생과 교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은 19일 오후 2시 전대학술문화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세계 속 전북대 각인시키고 올 것'

전북대 해외봉사단 발대식... 인도네시아 등서 봉사활동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은 19일 오후 2시 전대학술문화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은 역대 해외봉사단 경과보고와 이번 해외봉사단 소개, 양오봉 총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 대표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세계 속에 전북대를 각인시키고 올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하계 해외봉사활동에서 전북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4개국에 5개 팀, 1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들은 7월부터 팀 당 15일 내외의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다.

양오봉 총장은 발대식에서 "여러분 모두는 이번 활동이 녹록치 않은 일정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세계 속에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겠다는 스스로 나섰다고"며 "전 세계 어디서라도 자랑스런 전대인임을 잊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제일고, 도교육청

창업중점학교 선정

학생 창업팀 사업자 등록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창업중점학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학교 목공예학과 학생창업팀은 천연솜뿔제품을 생산해 프리마켓과 다양한 기관에 판매 활동을 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목재문화진흥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 전주대학교 창업관리지원 사업에 2팀이 선정돼 사업지원금과 해외연수 특전도 받았다.

올해는 전라북도 창업중점학교로서 체계화된 창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에 있다.

실제 남원제일고 목공예과 이현석(17) 학생은 '솜뿔하나무꾼', 진수향(18) 학생은 '하나라 솜뿔공방'을 기업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특히 '하나라솜뿔공예' 이덕경 대표와 협약을 맺어 유통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청소년 창업가로 꿈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정린 전북도의회 의원은 목공예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 건의해 목기제작에 필요한 교구 구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 사업협동조합 재정목 전북협의회장 등 많은 기관에서 관심과 후원을 하고 있고, 박강용 남원솜뿔공예관 관장을 비롯해 전문인의 기술지원과 협업을 통한 제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남원제일고 창업팀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난 5월 춘향제 프리마켓에서 판매됐으며,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달라지는 대입제도 배우러

도교육청, 내일 서울대 입학사정관과 만남 행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1일 오후 7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서울대 입학사정관과의 만남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수요자와 교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학부모 설명회는 도교육청 창조미래 별관 시청각실에서는 실

시한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대입전형에 대비한 고교생활 설계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어 같은 시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는 교사 간담회가 진행된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올해 입학전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후 교사들이 질문하고 사정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진안고원치유숲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공유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결과 성과 분석, 2023년도

제1회 분과위원회 운영 결과 기타 개선사항 제안 등이 다뤄졌다.

이에 따르면 전년도 교부액 집행률은 99.8%를 보였으며, 실질별 내역 중 교육운영비 64.0%·운영수당 21.4%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2년도 교부됐던 총 41건 예산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올해는 학생 5건, 학부모 11건, 교직원 및 주민 24건 등 총 40건의 주민참여 제안사업이 해당 학교에서 추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정시 수능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서울대 전형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서울대는 학생의 역량과 지적호기심에 주목하며 학생부종합평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도내 고등학교에서의 진학계획 수립과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중에서 있다.

김필중 예산과장은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운영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북교육재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선정

전주대 김병주 교수 연구팀, 활성탄소 분석·평가 지원 핵심 설비 구축 나서



전주대학교 김병주(신소재 화학공학과, 사진) 교수 연구팀이 다공성 탄소 소재 기반 환경 소재 및 부품 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핵심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의 주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한다. 이에 김병주 교수팀은 다공성 탄

소 소재(활성탄소)의 분석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핵심 설비 구축에 나선 예정이다. 전주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28억6,000만원이다.

한편 김 교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활성탄소(섬유) 분석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도 수주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활성탄소(섬유)는 미래 에너지, 환경 및 방위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이

차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위산업 등 국가 동력산업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 사업이 전국 유관 기업의 신산업 창출 및 전북 지역 탄소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최종 46명 선발

유치원 교사 4·초등 교감 3·초등교사 21명·중등교사 18명 8월 7~17일 자체 직무연수 이어 남부권 공동 직무연수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 최종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감 3명, 초등교사 21명, 중등교사 18명 등 총 46명이다.

이번 공개전형에 98명이 지원해 평균 2.08: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과정은 역량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하기 위해 3단계 평가전형을 실시했다.

먼저 1차 소양평가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및 창의적인 기획 능력을 평가했다. /정은성 기자

이어 2차 현장평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자기소개서 및 교육활동 실적과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설문해 인성적 및 동료교원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홈페이지 공개검증을 통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3차 역량평가에서는 심층면접 및 상호 토의·토론으로 컨설팅 역량과 현장 조정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8월 7~17일 50시간의 자체 직무연수에 이어 남부권 공동 직무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획능력 향상 및 교육정책의 포괄적인 이해와 시·도 교육청 간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제주관광대와 산학협력 공유 협업

전주기전대학은 19일 LINC3.0회의실에서 제주관광대학교와 산학협력 공유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 대학의 LINC3.0 사업단장을 비롯한 실무책임자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 대학은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의 특화 분야를 연계한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융합·시설의 공동 활용 △각 특화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교과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단장은 "LINC 3.0사업 참여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보건산업 캡스톤 디자인 경진 성료

전주기전대학 커피링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최근 보건산업 캡스톤 디자인 진로탐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수요자맞춤 보건산업 인력양성 커피링 사업단은 도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의한 인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산업 내 수준 높은 인재를 도내 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수강한 보건산업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의 특강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향을 탐구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커피링 사업단은 학생들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진로탐색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도내 산업체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라보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 개인별 진로에 맞는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